

2018 하반기 조회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 점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녹록지 않지만 희망 있어”

“1등 경쟁력 훼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결할 터”



2018년 하반기 조회가 7월 2일(월) 오전 10시 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올해 경영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상반기 SBS는 보도 부문에서 심층 보도와 뉴미디어가 성장했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특별방송, 6.13 지방선거 특집방송, 스포츠 등 빅 이벤트 중계가 호평을 받았다. 메인뉴스의 경우 2049 개인 시청률이 동시간대 MBC, JTBC를 앞질렀다. 제작 부문은 파워FM이 모든 라디오 채널을 통틀어 1위를 기록했고 러브FM도 부분적인 성과를 냈다. TV는 상반기(1/1~6/27) 프라임타임 2049 개인 시청률에서 MBC, KBS, JTBC, tVN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상반기 2049 개인 시청률 TOP 20위 안에 SBS의 프로그램 6개가 포진하는 등 방송사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올렸다. 그러나 드라마 킬러 콘텐츠의 부재와 교양, 예능의 화제성이 떨어지는 점은 분발이 요구되었다.

책임 경영의 원년인 2018년 상반기, 인사, 채용, 예산 집행 등이 본부(실, 센터) 책임 하에 시행되는 등 본부 책임제가 정착됐다. 상반기에 경력 직원 24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 신입과 경력 합쳐 60명 이상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등 주 52시간 근무에 대비한 인력 보강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또 외부 인력 존중, 장애인 고용 확대, 정년퇴직자 명예승진제, 그린 플랜 제도 시행을 통해 ‘감사와 배려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정훈 사장은 “한한령 지속, 중간광고 미시행, 광고 감소, 신규사업 성과 미진, 빅 이벤트로 인한 대규모 적자, 종편과 케이블의 성장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경쟁력 1위라는 단단한 무기가 있다. 광고판매도 타사 대비 우위에 있고, 빅 이벤트로 인한 예상 적자액도 줄어들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사장은 하반기 과제로 한한령 해제/중간광고 도입/아시안게임 적자 축소/경쟁력 1위 유지/드라마 킬러 콘텐츠 두 개 이상 제작/예능 신규 콘텐츠 성공/교양, 라디오 화제성 높은 콘텐츠 개발/보도의 신뢰도 제고/광고 매출 목표 초과 달성 및 캠페인 협찬 매출 목표 달성/재송신 협상 승소/신규 비즈니스 및 SMR, POOQ 경쟁력 제고/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계열사 거래 관계 개선/드라마 부문 구조 개선/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립 등을 들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박정훈 사장은 “SBS의 28년 역사가 만들어낸 1등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대 전제”라면서 “급여, 휴식시간, 근무환경, 포상, 회사에 대한 자부심, 개인의 명예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8 상반기 작품상 등 각종 상의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8 상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SBS 8 뉴스>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과 삼성 합병’ (정명원, 이병희, 박세용, 김종원, 한세현, 장훈경, 박하정, 정성진) | <집사부일체> (이세영)

2018 상반기 작품상 우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 사건’ (이근별) | <키스 먼저 할까요?> (손정현) | <박소현의 러브게임> (황건희) | 모비딕 <박나라의 복불쇼> (은지향)

2018 상반기 작품상 특별상

<TV 동물농장> 작가 이윤주 | <정글의 법칙 in 남극> 김병만 | <런닝맨> 작가 김미연 | <키스 먼저 할까요?> 작가 배유미

2018 상반기 인센티브상

<생활의 달인> | <두시탈출 컬투쇼> | <분봉파워> | <김영철의 파워FM> | <김용민의 정치쇼> | <이숙영의 러브FM> | <궁금한 이야기 Y> | <그것이 알고 싶다> | <TV 동물농장> | <미운 우리 새끼> | <집사부일체> | <정글의 법칙> |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 <런닝맨> | <불타는 청춘> | <키스 먼저 할까요?> | <러틴> | 북미정상 회담, 6.13 지방선거 등 보도

2018 상반기 비전실현상

아나운서팀 박찬민 | 광고팀 김성숙 | 모바일제작사업팀 옥성아 | 교양4CP 소속 박경식 | 예능운영팀 홍성진 | 드라마운영팀 이광순 | 편집2부 조제행 | 재무팀 조아라 | 미디어기술연구소 류경민

2018 상반기 특별공로상

SBS플러스 드라마본부 드라마CP 민연홍 | 미디어크리에이트 영업본부 IMC1팀 전미연 | SBS 디지털뉴스랩 뉴스서비스팀 이상훈

2018 2분기 특종상

금상: ‘특별사면과 평창... 삼성의 은밀한 뒷거래’ 한승희, 이한석, 전병남, 이세영, 민경호, 정경윤, 강청완, 이현영
‘1급 발암물질 라돈 과다 검출된 대진 침대’ 장세만, 강청완, 강민우, 정구희

2018 상반기 뉴미디어상

금상: 월드컵 취재파일 32개 주영민, 김형열, 이정찬, 하성룡



SBS, 2018년 상반기 2049 시청률 1위... 화제성 주도, 채널 경쟁력 UP↑

6월 2049 시청률 TOP 20에 <미운 우리 새끼> 포함 7개 진입! - 채널 최다



상반기 평균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순위	채널	시청률(%)
1	SBS	3.08
2	KBS2	2.68
3	MBC	2.00
4	JTBC	1.68
5	tvN	1.45
6	KBS1	1.32
7	MBN	0.43
8	채널A	0.35
9	OCN	0.33
10	TV조선	0.28

1분기 평균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순위	채널	시청률(%)
1	SBS	3.43
2	KBS2	2.87
3	MBC	2.28
4	JTBC	1.73
5	tvN	1.67
6	KBS1	1.31
7	MBN	0.44
8	채널A	0.35
9	OCN	0.32
10	TV조선	0.27

2분기 평균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순위	채널	시청률(%)
1	SBS	2.73
2	KBS2	2.49
3	MBC	1.71
4	JTBC	1.63
5	KBS1	1.32
6	tvN	1.24
7	MBN	0.42
8	채널A	0.36
9	OCN	0.34
10	TV조선	0.30

※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프라임타임 평일 19:00-24:00 / 주말 18:00-24:00

SBS가 2018 상반기 2049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의 상반기(1~6월) 채널별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SBS가 3.08%(이하 수도권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상반기 통틀어 3%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채널은 SBS가 유일하다. 2위는 KBS2(2.68%), 3위는 MBC(2.0%), 4위는 JTBC(1.68%)다. 분기별 시청률에서도 SBS는 1분기에 3.43%, 2분기에 2.73%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상반기 프로그램별 2049시청률 TOP3를 보면, 1위KBS2<황금빛 내 인생>(14.1%), 2위MBC<무한도전 토토가3H.O.T>(11%)에 이어, SBS<미우새>(8.3%)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황금빛 내 인생>과 <무한도전>이 종영한 2분기부터는 <미우새>가 2049 시청률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6월 한 달간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TOP 20을 보면, SBS가 1위 <미우새>를 포함해 무려 7개 프로그램이 포진,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TOP 20에 진입했다. KBS2는 3개, MBC는 5개, tvN은 3개 프로그램이 순위에 들었다.

SBS는 TOP 20 안에 든 7개의 프로그램 중 <궁금한 이야기 Y>를 제외한 <미우새>, <집사부일체>, <동상이몽2>, <정글의 법칙>, <런닝맨>, <불타는 청춘> 등 6개가 모두 예능으로, 예능의 선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TOP 20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시청률(%)
1	KBS2	주말(황금빛내인생)	14.13
2	MBC	무한도전토토가3HOT	11.02
3	SBS	미우새	8.26
4	tvN	2호점순식당<본>	8.12
5	MBC	무한도전	7.73
6	KBS2	주말드라마(같이살래요)	7.40
7	MBC	나혼자산다	6.75
8	tvN	수목(슬기로운감빵생활<본>)	6.38
9	MBC	주말특별기획(돈꽃)	6.14
10	tvN	강식당<본>	5.54
11	SBS	드라마스페셜(리턴)	5.52
12	tvN	수목(김비서가왜그럴까<본>)	5.50
13	SBS	집사부일체	5.34
14	tvN	꽃보다할배리턴즈<본>	5.25
15	tvN	화유기<본>	4.71
16	JTBC	효리네민박2	4.49
17	SBS	정글의법칙IN파타고니아	4.39
18	SBS	동상이몽2너는내운명	4.28
18	KBS2	월화(우리가만난가족)	4.28
20	SBS	월화(키스먼저할까요)	4.27

6월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TOP 20

순위	채널	프로그램	시청률(%)
1	SBS	미우새	8.22
2	KBS2	주말드라마(같이살래요)	7.98
3	MBC	나혼자산다	6.19
4	SBS	집사부일체	5.58
5	tvN	수목(김비서가왜그럴까<본>)	5.50
6	tvN	꽃보다할배리턴즈<본>	5.25
7	MBC	전지적참견시점	4.66
8	JTBC	히든싱어5	4.10
9	SBS	동상이몽2너는내운명	3.99
10	KBS2	해피선데이	3.93
11	SBS	정글의법칙IN멕시코	3.90
12	MBC	출발비디오여행	3.87
13	SBS	런닝맨	3.76
14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3.69
15	KBS2	수목드라마(슈츠)	3.55
16	tvN	무법변호사<본>	3.41
17	MBC	신비한TV서프라이즈	3.40
18	SBS	불타는청춘	3.36
19	SBS	궁금한이야기Y	3.29
19	JTBC	아는형님	3.29

※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올림픽, 월드컵 빅이벤트 프로그램 제외

상반기 결산 예능본부 기자간담회 개최

남승용 본부장 “상반기 예능은 100점, 하반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능 준비 중”



부장과 최영인 예능1CP, 안범진 2CP, 유윤재 3CP, 공희철 4CP, 김재혁 5CP가 참석했다.

상반기 예능에 대해 남 본부장은 “압도적인 1등”이라고 자평했다. 남 본부장은 “시청률이나 수익성 면에서 100점이다. <미운 우리 새끼>가 전체 예능 1등이며 <집사부일체>,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 단시일 내 좋은 성과를 냈다. <불타는 청춘> 등의 스테디셀러도 제 몫을 하고 있다. 금요일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1등은 아니지만 고정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게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포트폴리오가 관찰 예능에 몰려있는 점이 조금 아쉽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

적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시즌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SBS는 올 하반기 <더 팬>, <품나게 먹자>, <무학행> 등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예능 강국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팬>은 셀럽이 참가자의 1호 팬이 되어 우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으로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완전히 다른 포맷이다. <K 팝스타>의 박성훈, <판타스틱 듀오>의 김영욱 PD가 공동 기획하여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무학행>은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서장훈, 이상엽, 김준호, 이상민이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무작정 떠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경규, 김상중이 호흡을 맞추는 <품나게 먹자>는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철 희귀 식재료를 찾아가는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4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부장과 CP들이 각 테이블을 돌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라운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돼 50개가 넘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상반기 결산 예능본부 기자간담회가 6월 28일(목) 당산동 더 스테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남승용 예능본

양한 장르의 예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PD들이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편성 시간이 한정

특별기획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7월 14일(토) 첫 방송 새 얼굴을 얻고 기억을 잃은 여자의 미스터리한 과거 찾기



새 특별기획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이 7월 14일(토) 첫 방송된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살기 위해 페이스오프급 성형수술을 감행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한 여자가 조각난 기억의 퍼즐들을 맞추며 펼쳐가는 달콤 살벌한 미스터리 멜로드라마다. <소금인형>, <그래도 당신> 등을 집필한 박연희 작가와 <황홀한 이웃>, <당신이 잠든 사이>등을 연출한 박경렬 PD가 의기투합했다.

여 주인공 지은한 역은 남상미가 맡았다. 지은한은 불가피한 이유로 다른 얼굴이 될 것을 선택했지만 예기치 않은 기억상실로 큰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남상미는 “은한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이 몹시 흥미롭다”고 귀뜸하여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재원은 성형외과 원장 한강우 역으로 분한다. 한강우는 운명처럼 만난 은한의 성형수술을 담당하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함께 찾아가는 흑기사 캐릭터로 여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용팔이> 이후 3년 만에 SBS로 돌아오는 조현재는 SBC 방송국 차세대 뉴스 앵커 강찬기 역으로 분한다. 겉보기엔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남자지만, 알고 보면 섬뜩한 면모를 지닌 캐릭터의 이중성을 실감 나게 연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찬기의 어머니이자 파인 코스메틱의 회장인 민자영 역은 이미숙이 맡았다. 민자영은 회사를 자식만큼 사랑하는 워커홀릭으로 직원들에게는 존경받는 경영인이지만, 정작 외아들 강찬기와는 냉랭한 사이다.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민 회장 집의 집사 정수진 역에 한은정이 출연하며, 그밖에도 양진성, 이대연, 김뢰하, 김정영, 정영주, 정진운, 이호정, 김보강, 강훈 등 색깔 있는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드라마의 재미와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흡인력 있는 스토리와 스릴 넘치는 전개로 울여름 주말 밤을 책임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7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SBS-스카이티비, 국내 최초 펫 프로그램 브랜드 블록 업무협약 <TV 동물농장>, 신규 펫 프로 <아기와 나> 매일 6시간씩 집중 편성



SBS와 스카이티비(skyTV) 양사는 6월 29일(금) 반려동물 콘텐츠 확산을 위한 ‘브랜드 블록’ 업무협약을 업계 최초로 체결했다.

‘SBS 하루X스카이펫파크(skyPetPark)’라는 이름으로 론칭한 이번 브랜드 블록을 통해 <TV 동물농장>과 신규 펫 프로그램 <아기와 나> 등이 펫 전문채널 스카이펫파크를 통해 매일 6시간 동안 집중 편성된다.

2001년부터 <TV 동물농장>을 방송하며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해 온 SBS와 펫 전문 채널을 통해 펫 문화 발전을 선도한 스카이티비가 국내 최초로 ‘채널 속 채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 포맷을 만들어 의미가 크다.

‘SBS 하루’는 <TV 동물농장> 제작진이 만든 반려동물 콘텐츠 서비스로, ‘SBS 하루X스카이펫파크’ 브랜드 블록은 7월 1일(일)부터 낮 3시간(매일 12시~15시), 밤 3시간(평일 20~23시, 주말 22~25시)씩 일일 총 6시간 편성된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 <아기와 나>는 <TV 동물농장>의 오랜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로봇 제작진이 투입되어서 반려동물의 시점에서 반려동물의 일상을 이해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풀어본다.

한편, SBS 동물농장 사업 프로젝트 관계자는 “지상파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을 시작으로 온라인 채널 ‘애니멀박’, 온라인 플랫폼 ‘SBS 하루’, 케이블 채널 ‘브랜드 블록’, 오프라인 펫 이벤트, MD 상품화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라인업이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방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BS, BBQ와 공연사업 파트너십 구축 ‘슈퍼콘서트’ 대표적 공연 브랜드로 육성



SBS가 BBQ와 공연문화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SBS 박정훈 사장과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은 6월 26일(화), ‘SBS 슈퍼콘서트’ 공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및 2018년 공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SBS는 이번 협약을 통해 K-POP 열풍을 확산하고, 국내 공연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BBQ와 함께하는 ‘SBS 슈퍼콘서트-For your Dream’(가제)을 개최하며, 첫 공연으로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하는 10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SBS는 ‘SBS 슈퍼콘서트’를 대표적 공연 브랜드로 육성해 청소년들이 K-POP 공연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SBS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SBS 슈퍼콘서트 in TAIPEI’를 7월 7일(토) 대만에서 개최해 글로벌 한류 콘텐츠 리더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2018 **희망TV** SBS, KOICA와 영어회화 프로그램 제작



<희망TV SBS>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영어회화 교육용 TV 프로그램' 80편을 제작한다. 한국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만든 영어회화 교육용 프로그램 '해피톡'은 탄자니아 국영방송사인 TBC(Tanzania Broadcasting Corporation)를 통해 탄자니아 전국에 방송된다. <희망TV SBS>는 2017년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포맷을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를 만든 바 있다. 이번에 <희망TV SBS>, 굿네이버스, (주)대교(현물 2억 원 기부) 3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비의 일부(50%)를 마련하고, 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 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언어로 진행되는 최초의 영어 회화 교육용 프로그램이 된다. 향후 SBS 현업 제작 스태프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잔지바르 미디어교육센터 현지 스태프의 방송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SBS A&T는 센터의 방송장비 보강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TV SBS>는 이러한 사업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아프리카에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 스스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희망TV SBS>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인재양성을 위한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라돈 침대'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상 등 3관왕



정책사회부 강청완, 장세만, 강민우 기자, 문화과학부 정구희, A&T 이승환, 김선탁 기자가 '라돈 침대' 관련 연속 보도로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1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강청완 기자 등은 국내 유명 회사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과다 검출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 큰 사회적 파장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시상식은 6월 27일(수)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정글의 법칙 in 남극>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정글의 법칙 in 남극>(연출: 김진호)이 6월 27일(수)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정글의 법칙 in 남극>은 남극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글의 법칙 in 남극>은 6월 초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받은 바 있다.



2018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중계를 마치고

"팬반의 준비와 팀워크로 이뤄낸 한 치의 오차 없는 중계"

- SBS A&T 중계기술팀 이호중 차장대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국내외 여러 방송 매체들이 발 빠르게 중계방송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SBS도 긴급히 싱가포르 방송단을 조직하여 북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지에서 어떻게 생방송을 할지 수차례 회의를 하였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타났다. 현지 방송과 국내 방송의 영상 dela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현지 스튜디오와 국내 스튜디오 간의 인터컴을 어떻게 구성

능하여 방송기술에 있어 모멘텀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카메라 영상-조명-세트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싱가포르 현지 스튜디오로부터 전달되는 영상은 타사에 비해 깨끗하고 선명하여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정보의 전달력이 극대화되었다.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카메라와 조명 등의 장비 이송 문제도 불거졌지만, 방송을 성공적으로 해내겠다는 열망에는 부수적인 문제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논의했다. 전 국민이 주시하는 북미 정상회담 정보를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만 했다. 다양한 솔루션 가운데 찾은 방법은 IP 전용 네트워크 전송장치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4,565.8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100ms 이하의 차이로 안정적인 영상과 인터컴 구성이 가

2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혼신을 다하여 장비를 선정하고 시스템 계통을 구축했다. 수없이 많은 자체 리허설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했고,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 북미회담 싱가포르 방송단은 극히 소수 정예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자 맡은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여 녹록지 않은 환경을 극복한 케이스다. 연출, 보도기자, 기술, 카메라, 조명, 세트 등 각 부문이 뛰어난 팀워크로 북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을 실수 없이 치러냈다. 특히, 국내외 3가지 빅 이벤트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기술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NQC를 중심으로 한 1부조 및 4부조와의 연계로 성공적인 중계방송을 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려 현지에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가기 전날까지 도면 작업 등을 도와준 이흥재 사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덩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동고동락했던 싱가포르 방송단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